함즐함울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48
2022.3.13.

오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5~6

오늘의 주요기사

2-3 특집기획
4-5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6-8 청년숲 겨울온라인수련회
9-11 겨자씨인도자수련회
12 행복한선교회 소개
13 신앙간증
14 찬양대 찬양일기
15 인터뷰
16 공동체소식

배움의 시작

"선교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배우는 일도 포함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하라고 보낼 때, 그들이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와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요 16:12~15). 예수의 대적들이 굴복할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믿는 일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 모든 역사와 모든 경험은 이제 이 믿음과 이 약속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일'은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그 무엇이다.<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레슬리 뉴비긴)>"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이번호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특집이 수록됩니다. 함즐함울 발행을 한주 미루어야 할 만큼 내용과 필자를 고민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매호마다 실리게 될 특집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며,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즐함울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미래의 주님의교회 특집기획
'선교'를 다시 생각한다 ❶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푯대로 '선교'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함즐함울〉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즐함울**

발제 순서

1. 머릿글 _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류경민 목사 / 주님의교회 부목사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머릿글입니다. '주님의교회와 세상' 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정기묵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
한국 교회가 질적 선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을 통해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3.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김영동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주님의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오기까지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태동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한국일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선교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태동, 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및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5. 선교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박보경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한국 양스펠로십 대표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 성장'의 차원을 알아보고, 주님의교회의 성장의 영역을 생각해봅니다.

6.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이병옥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이웃을 만나왔지만 선포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대화적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됩니다.

7.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김도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교육도 역시 하나님의 교육(에듀카치오 데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하듯이,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 교육을 넘어서서 가정, 교회,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이 요청됩니다.

8.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한강희 교수 / 한신대 선교학과 연구교수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기준과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을 살펴보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확장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교회가 새롭게 세운 푯대 '선교'

<함즐함울>에서는 지난 2015년 주님의교회 27주년기념 특집기획으로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제하의 지상토론을 통해,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이 지상토론을 통해, 주님의교회가 다른 타락한 교회를 피해 온 "주인의식 없이 무임승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난민들이 붐비는 가건물"에 머무르거나 "제도 개혁 자체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뼈아픈 조언(김회권 교수)을 들었고, "미래에 다가올 중대한 도전들을 예상해"보고, "강한 신앙적 정체성과 더불어 세상과의 관계적이며 소통적 능력을 지닌 공동체"가 되어 "방황하고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는 주님의교회"가 되라는 권면(장신근 교수)을 받았다.

2018년에는 창립 30주년 특집기획으로 "한국 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이라는 제하의 지상토론을 진행했다. 소통과 정치, 경제, 교육, 가치, 환경과 관련하여 각각 분야별 신학자와 목사의 기고와 인터뷰를 받아, 주님의교회가 성장한 지난 30년의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에 진행한 특집이었지만 지금 실감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 변화의 양상과 문제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번의 특집에서 들었던 조언의 무게를 다시금 새롭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도래했다.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중대한 도전'인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이 모든 상황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등장했다. 이미 예견했던, 그러나 새롭게 그 무게를 측량해야 했던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푯대로 '선교'를 세웠다. 이는 '세상과 관계적이며 소통적 능력을 지닌 공동체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오랜 성찰에 바탕을 두어 무겁게 출발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한다. '선교(mission)'라는 영어 어휘는 라틴어 동사 'mittere(보내다 또는 파견하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였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셨다. 그 일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방 전도를 나선 이가 바울이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2~14)라는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 세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선언한 것이다.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까닭

주님의교회는 재정의 절반을 대외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교회이며, 이제까지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 선교를 지원하고, 매년 많은 성도들이 비전트립에 참여하는등 국내외 선교 활동에 전념해 온 바 있다.

'하나님의 선교' 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독일의 신학자 칼 하르텐슈타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으며, 성령님께서 교회를 보내셨음을 근거로
삼위 일체 하나님의 파송하심이 곧 선교의 근거임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올해 주님의교회 주제인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에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교회 중심의 선교를 넘어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칫하여 종래의 개념으로만 '선교'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 중심의 선교'개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 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인 칼 하르텐슈타인이었다. 하르텐슈타인은 1952년 국제선교협의회의 빌링겐 대회에서 그때까지 서구에서 행해져 왔던 '교회 중심적 선교'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선교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으며, 성령님께서 교회를 보내셨음을 근거로 삼위 일체 하나님의 파송하심이 곧 선교의 근거임을 주장했다. 이를 그는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렀다.
주님의교회에서 새롭게 주제로 세운 '하나님의 선교'도 이러한 신학적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한 선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창조하셨고(창 1:1),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그분의 창조 세계를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것이다(계 21:1).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시작의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고(막 1:15),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내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며(행 1:3), 사도 바울 역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며 다녔다(행 28:31).
곧 우리 신앙의 근거인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역사를 기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말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란 그분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 의 무대

하나님이 헌신적으로 그분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역사하시는 선교의 장은 어디일까? 미전도 종족일까? 국내 농어촌일까?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는 훨씬 넓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상실된 온 세상'이 그 무대가 될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우상숭배가 만연하며,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어진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피조세계의 곳곳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다. 가까이는 내 마음의 중심을 비롯하여, 가정, 교회 주변 지역, 문화, 열방, 자연 등 모든 곳이 선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 하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장차 완성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자리와 구체적인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고, 그분의 창조질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곳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행한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의 선교는 틀린 것일까? 교회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왕의 백성으로 기능한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가정을 부르고 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인들을 훈련하고 가정과 온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다.

'선교적 교회' 라는 의미

교회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는 모든 곳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선교 (Mission)이고, 이를 위한 마음가짐, 방향성을 선교적(Miss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오늘날의 교회 중심주의, 교파주의, 권위주의, 수적성장주의, 물량주의, 이분법적 사고 등 인간/교회 중심적으로 치우친 선교를 진단하며 나온 신학적, 성경적 결과물이다. 모든 활동이 선교라면, 복음 증거와 개인 회심, 교회개척이라는 기존의 선교 개념을 위협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선교의 개념 안에 함께 담기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교회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신앙공동체)를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고 한다. '선교적 교회'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교회는 주어진 상황(콘텍스트) 안에서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상황에 맞는 '선교적 교회'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방법이나 사역의 방향은 아주 다양하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선교'인 것이다.

대안적 미래 제시하는 주님의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를 몸에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교회 전 교인이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인 피터 센게는 그의 책 <학습하는 조직>에서 시스템 사고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오래 가는 공동체는 조직이 가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배워가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주님의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나아가되 지속적인 교회의 성숙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성도가 시스템 사고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모든 성도가 일상에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 위해서이다.
<함즐함울>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개념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해하기 위해, 장로회신학대학의 원로 교수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의 기고를 받아 이번 특집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신학적으로 살펴보고, 드디어는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는 주님의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집 진행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든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은 주제나 내용이 있을 경우, 함즐함울(hamletter@daum.net)로 알려 주시면 기획에 포함하여 논의를 더 깊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체 모두의 성원과 열독을 기대한다.

류경민 목사 / 함즐함울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지난 2월 12일(토)부터 13일(주일)까지 <2022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행 1:8)”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는 교회의 표어에 맞춰 말씀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신앙교육을 세우는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님을 만남으로 커다란 선물을 받고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 받은 주인공 중에 우리 주님의교회 유소년숲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물품발송과 온라인 성경학교 모습

하나님의 선교를 노래하는 ‘엘키즈’

올해 겨울성경학교 주제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노래한 ‘오직 성령이’이라는 찬양을 주제곡으로 성경학교 기간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유소년숲 찬양팀(엘키즈)의 찬양과 율동을 영상으로 준비하며, 입술 가운데 말씀이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엘키즈찬양, 주제찬양 영상 유튜브 QR코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게 하는 사도행전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교재는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유소년숲 친구들이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직접 답을 찾는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교재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게 하는 ‘십자가와 교회’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교회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그 의미가 유소년숲 어린이들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어린 시절 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일평생을 신앙위에 서게 합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를 손으로 직접 만들고, 색칠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방에서 직접 제작된 십자가는 유소년숲 아이들에게 보다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통해 직접 십자가를 사포질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교회에 아직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손으로 만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십자가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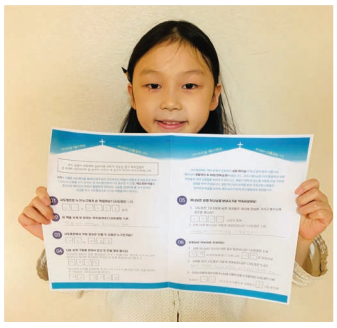
하나님의 선교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부모교육’

가정에서 함께 하는 성경학교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순서도 준비했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 10시 30분 ‘안희정’소장을 모시고 실시간 부모특강 프로그램을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희정 소장은 기독교 및 자녀상담 전문가로 ‘통!’ 하는 엄마가 자녀를 성공시킨다’의 저자로, 현재 한국 군경소방상담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촌세브란스 원목실장 사모이기도 합니다. 가정신앙전문가의 부모특강을 통해 코로나시대 부모와 자녀간의 신앙교육을 통해 말씀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며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교육

올해 유소년숲도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가정이 선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토대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유소년숲 어린이들이 아직 작고 어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작은 제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3천명, 5천명을 전도한 베드로처럼, 땅 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유소년숲 어린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상훈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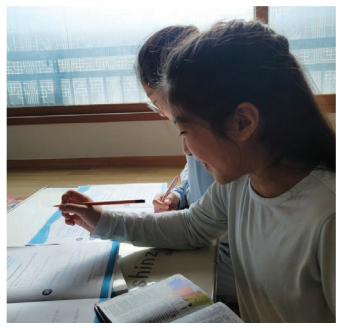


은우 즐겁게 성경학교 참여했습니다 ~ 즐거운 여러 활동들과 고급간식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년2부 지은우 부모님

요한이 겨울 성경학교 즐겁게 잘 참여하였습니다 ~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년2부 김요한 부모님



정하율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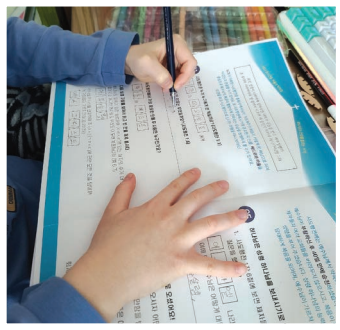
초등2부 정하율 부모님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준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초등2부 이채린 부모님

하준이도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년2부 박하준 부모님



열심히 참여한 인증샷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

소년1부 배서준 부모님

겨울성경학교 모든 과정 참여하였습니다. 알찬 과정 감사합니다 ^^

소년2부 천지훈 부모님

성경학교 은혜롭게 참여했어요 ^^

초등2부 한지민 부모님

서영이 즐겁게 성경학교 참여했습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초등2부 박서영 부모님

즐겁게 겨울성경학교 참여하였습니다 ^_^*

유년2부 최재호 부모님

겨울성경학교 참여 했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2부 양신우, 양은우 부모님

하나님과 함께 한 주님의교회 겨울성경학교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선생님들 마음 담긴 간식도 넘 감사했어요 ^^

초등2부 주하정 부모님

재미있게 참여했어요 감사합니다 ^^

초등2부 박서빈 부모님

겨울성경학교 참여했습니다. 고생하신 교역자분들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등2부 어승혁 유년2부 어승준 부모님

예배 참석 후, 교회를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만들었네요 ^^ 알찬 성경학교 마련해주셔 감사합니다!

유년2부 박서우 부모님

겨울성경학교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준비하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

초등2부 천지온 부모님

청년숲 | 겨울수련회

리브 투게더

2월 12일 ~ 13일 이틀 동안의 청년부 겨울수련회.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22년도 청년부의 주제인 'Live Together'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Live Together, 믿는 자들과의 Live Together, 세상 속에서의 Live Together를 꿈꾸며 아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체 소감

온라인 수련회라는 특성상 한계와 어려움만 있을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지경을 놀랍게 넓혀주시고 부족함까지 사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 수련회 모습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기에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대관하는 대신 온라인 플렛폼인 '게더타운'에 청년부 수련회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게더타운'덕분에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 함께 모여 있어 현장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특별히 '배달의민족 상품권'을 통해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현장 수련회처럼 게더타운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조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니 하루를 함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서로의 음식과 일상의 대화를 하니 조원들과 수련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수련회 키트가 제작되었습니다. 키트에는 수련회 안내 책자와, 겨자씨 교재, 수련회 굿즈인 그립톡, 애찬키트, 간식키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수련회 진행해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물건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수련회의 몰입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수련회 주제가 새겨진 그립톡을 볼 때마다 함께 살아가고자 나누었던 그날이 결단이 지속적으로 떠오릅니다.

결핍에만 집중하면 한 없이 부족함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시선을 넘어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한계를 인정하니 새로운 관점을 얻었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회복된 마음을 바탕으로 22년 청년부가 오직 하나님의 순서와 시간에 순종하며 감사함을 찾으며 적용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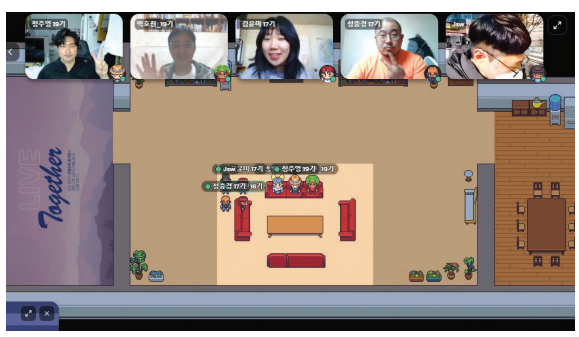
박호전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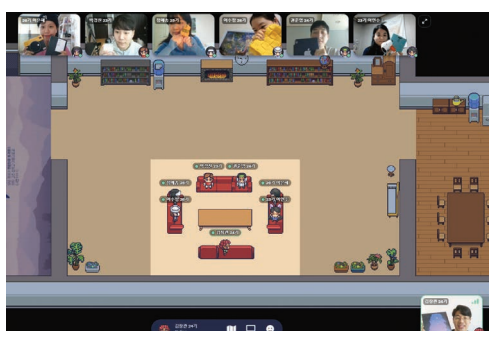
공동체 프로그램 "하우 두유 리브~?"

이번 청년부 겨울수련회 공동체 프로그램 시간에는 각 사역팀 테마로 꾸며진 연습실, 미디어실, 나눔방, 로비2층 총 4개의 방에 들어가서 간단한 사역팀 소개도 듣고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방마다 2, 3개 정도 게임이 진행되어서 지루한틈 없이 빠르게 게임이 진행되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방마다 게임 진행자 성향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분위기도 다 달라서 이러한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여름수련회는 방마다 힌트를 찾아서 방탈출을 하는 것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작년 방 탈출 게임 당시 저희 겨자씨는 저와 조원 단 둘 뿐이라 아무래도 많은 인원일수록 빠르게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방 탈출 게임에서는 저희 겨자씨는 힌트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공동체 프로그램은 조 인원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임들로 구성되어(예를 들면, 노래 맞추기, 인물 맞추기 등) 개인적으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게임 진행을할 때 게더타운에 설치된 피아노로 직접 연주를 한다든지, 이러한 세심함이 게임을 더 몰입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조 구성은 2개의 겨자씨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같은 겨자씨가 아니라면 수련회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게임 진행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같은 조라도 서로 자기소개도 하지 못한 채로 게임에 참여하게 되어 얼굴은 알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약간 어색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저희 조가 공동체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상품으로 치킨 기프티콘을 받아서 신이 납니다! 조원끼리 다같이 모여 먹기에는 상황이 어렵지만 하루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주희 청년





제가 주님을 깊게 느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한결같이 저를 지키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고, 혼자 믿는 것이 아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LET 소감

안녕하세요. 청년부 25기 이예린입니다. 2022 겨울 수련회는 'Live Together'라는 주제 하에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첫째 날 예배 1 LET 시간에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20대 후반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는 제 삶에 대해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청년을 대표해 하나님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나눈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동역자들과의, 그리고 세상과의 Live Together를 잘 해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깊게 느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한결같이 저를 지키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고, 혼자 믿는 것이 아닌 "같이"하나님을 믿는 청년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 교회 밖으로 다시 나갈 때 나의 다짐과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구별됨이 참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더 기쁘게 여기실 것 같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 서로의 고민과 삶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수련회 시간을 통해다른 분들도 '교회 다니는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민들이나 생각들을 공감받을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내년 수련회는 오프라인에서 또 큰 감동과 위로를 받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예린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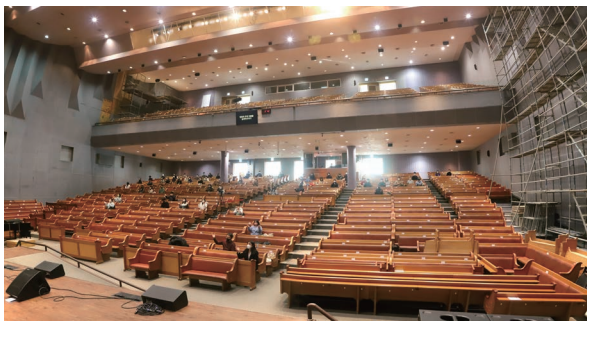
예배 소감

2022년에 청년부 표어이자, 겨울 수련회 주제였던 "Live Together"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생각했습니다. 갸우뚱하며 함께 사는 청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으로 나라는 존재에 집중되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수련회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청년에 대한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10절 말씀 중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땅에서도 이루신 것 같이 나라는 존재가 출발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사는 청년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크고 원대한 계획보다 작아 보이는 손을 내밀고 발을 내딛는 과정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Live Together에 역할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 내보겠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과정을 도우시는 교역자분들과 부장단님들 그리고 함께 가는 주님의교회 성도들도 리브 투게다 b!

박건우 청년



조 모임 1 소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Live Together!

설레는 말씀과 예쁜 포스터, 리브 투게더를 외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유쾌한 수련회 홍보 영상, 온라인이지만 뜨겁게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렸던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점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커져 갔던 이번 겨울 수련회!

그 수련회의 문을 여는 조모임1 시간은, 작년에 이어 교회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온라인 가상공간 게더타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경험치를 쌓은 탓인지 능숙하게 접속하여 각 겨자씨의 텐트로 모여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을 열며 수련회에 함께 한 지체들과 화상으로 만나니 교회에서 만나는 것과 또 다른 느낌으로 반가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소중한 물건들을 서로 소개하면서 운동기구, 커피머신, 다이어리, 핸드폰 등 다양한 물건들이 등장했는데 그렇게 서로의 취향과 취미를 알아가며 미처 몰랐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TFT(True.False.True) 시간에는 두 개의 진실과 한 개의 거짓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들을 적고 나머지 조원들이 거짓인 문장을 찾기 위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모습들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과 바람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이힐에서는 두 겨자씨가 합쳐져 수련회첫날을 함께 보내게 된 만큼 겨자씨모임에서 만나지 못하는 지체들과도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친해져요'라는 주제 아래 내.물.소(내 물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TFT로 채워진 조모임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며 유쾌하게 서로를 알아가며 가까워질 수 있었기에 오후에 이어진 공동체프로그램과 조모임2 시간까지도 즐겁게 리브 투게더할 수 있었습니다.

김윤미 청년

조 모임 2 소감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조모임2(QQ카드) 시간이 되었다. 줌 링크를 공유하고 잠잠히 겨자씨원들을 기다렸다. 하나둘 화면이 켜지고 들어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렇게 모두 모이고 기도로 조모임2를 시작하였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각자의 방에 조명을 끄고 작은 촛불을 켰다. 그렇게 시작된 깊은 나눔의 시간, 조명이 꺼진 방처럼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모두 깊었던 어둠이 있었다. QQ카드의 질문을 읽으며 어렸을 때의 기억들, 자라온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 시간 동안 언제 차가운 겨울같이 추웠는지, 또 언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과 같았는지, 아니면 뜨거운 여름처럼 누구보다 열정적인 때는 언제였는지 내면에 있는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겨자씨원들도 스스로를 묵상하며 나누어 주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공감하기도 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마주한 우리의 모습 곁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셨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 느꼈다. 어둠이 깔려있는 그 방안에 홀로 빛나는 촛불처럼 예수님께서는 조모임2 시간을 통해 언제나 곁에 계셨음을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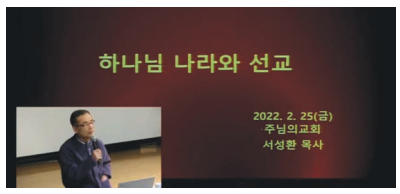
짧은 나눔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김장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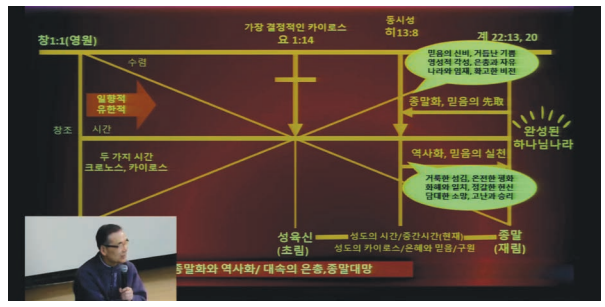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하나님 나라와 선교

지난 2월 25일(금) 오후 7시, 지하 중예배실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 겨자씨인도자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다 같이 모이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 온라인 유튜브 스트리밍 송출이 함께 진행되었지만 많은 겨자씨 섬김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와 선교'주제 강의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온 제주 사랑숨결교회의 서성환 목사는 우리에게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이 함께 나눈 네 가지 인사(찬미 예수, 예수 샬롬, 마라나타, 아멘 아멘)를 가르쳐주며 이 인사가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공동체 안에, 또 겨자씨모임 안에 이뤄질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여 그에 대한 일환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라는 표어를 외치며 올해를 시작하게 됨을 반가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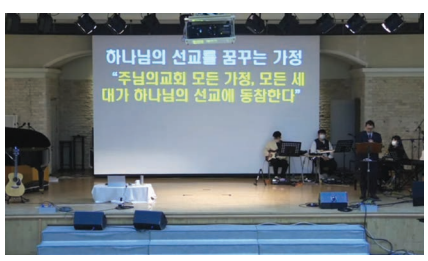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강의는 한 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서성환 목사는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일관된 중심주제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삶으로 살아내신 복음적 삶의 핵심내용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의 삶과 선포의 중심 주제이자 핵심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모든 역사는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수렴되고, 십자가 후로부터의 역사는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발산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의 삶 속으로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삶의 종말화가 이뤄지면 믿음의 신비와 거듭난 기쁨이 숨결처럼 다가오게 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은총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느끼며, 모든 삶의 비전이 확고해지는 풍성한 복음적 삶, 즉 카이로스적 삶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정의, 자유, 거룩이 나타나 십자가의 삶, 결국 샬롬을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요17:5), 그분과 함께 사는(요일5:20)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룩처럼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서로 연대하며 이루어가고, 교회와 겨자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서목사가 직접 작사한 찬양과 떼제 찬양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회를 인도해주어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데, 겨자씨인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의 사역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또 즐거이 부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며 주님의 세계 안에 약속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즐겁게 우리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교구와 겨자씨와 가정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한 선교'라는 우리의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비전을 함즐함울과 주님과함께 말씀묵상집을 통해 함께 나누고, 선교현황판을 교회 게시판을 활용하여 제작/운영하고, 각 가정에서도 선교지도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비전을 공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All)라인 해외비전트립을 준비/진행하게 될 것이고, 선교지와 겨자씨를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국내 선교지에는 교구별로 아웃리치를 계획하여 그곳의 실제적인 필요를 살펴 도움을 주는 시간들을 계획하고 올해로 추진하게 될 것임을 겨자씨 섬김이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서성환 목사를 주님의교회로 보내주시고, 귀한 강의와 기도회를 인도하여 은혜 가운데 이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며 겨자씨와 함께 해야 하는지 나누게 하셨으니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번 한학기를 주님과 함께 잘 이뤄가야겠다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2022년도 주님의교회 모든 겨자씨 파이팅!!

박주영 목사

2022년 겨자씨인도자 주요 일정

월	일	일 정	비 고
1월 성경봉독 1교구	2		성경필사(사도행전) 1~3월
	9		
	16	신임 서리집사교육 1주차	온라인/과제
	23	신임 서리집사교육 2주차	온라인/과제
	30		설 연휴
2월 성경봉독 2교구	6	**교구연합수요기도회(2/9) – 2교구 주관**	
	13	교구편성 및 겨자씨인도자 명단 게시(2022)	
	20	**겨자씨인도자 수련회(2/25)**	인도자가이드북 제작/배포
	27		
3월 성경봉독 3교구	6	**교구연합수요기도회(3/2) – 1교구 주관**	**전교구 온라인 대심방 시작**
	13	겨자씨 개강(1학기) / 겨자씨교육1(3/16)	온라인 교육/나눔
	20	겨자씨교육2(3/23)	온라인 교육/나눔
	27	겨자씨교육3(3/30)	온라인 교육/나눔
4월 성경봉독 4교구	3	**교구연합수요기도회(4/6) – 8교구 주관**	
	10	겨자씨교육4(4/13)	온라인 교육/나눔
	17	겨자씨교육5(4/20)	부활주일(4/17), 온라인 교육/나눔
	24	겨자씨교육6(4/27)	온라인 교육/나눔
5월 성경봉독 5교구	1	**교구연합수요기도회(5/4) – 7교구 주관**	성경필사(창세기) 5~8월
	8	겨자씨교육7(5/11)	온라인 교육/나눔
	15	겨자씨교육8(5/18)	온라인 교육/나눔
	22	겨자씨교육9(5/25)	온라인 교육/나눔
	29		
6월 성경봉독 6교구	5	**교구연합수요기도회(6/1) – 6교구 주관** 겨자씨교육10(6/8)	
	12	겨자씨교육11(6/15)	온라인 교육/나눔
	19	겨자씨교육12(6/22)	온라인 교육/나눔
	26	**겨자씨 종강(1학기)**	온라인 교육/나눔

월	일	일 정	비 고
7월 성경봉독 7교구	3	**교구연합수요기도회(7/6) – 5교구 주관**	
	10		
	17		
	24		
	31		
8월 성경봉독 8교구	7		
	14	하반기 교구사역 준비	
	21		
	28	**겨자씨인도자 수련회(9/2~3)**	
9월 성경봉독 1교구	4	**교구연합수요기도회(9/7) – 4교구 주관**	추석 연휴
	11	겨자씨 개강(2학기) / 겨자씨모임1(9/14)	
	18	겨자씨모임2(9/21)	
	25	겨자씨모임3(9/28)	
10월 성경봉독 2교구	2	**교구연합수요기도회(10/5) – 3교구 주관**	성경필사(역대상, 역대하) 10~11월
	9	겨자씨모임4(10/12)	
	16	겨자씨모임5(10/19)	
	23	겨자씨모임6(10/26)	
	30		
11월 성경봉독 3교구	6	**교구연합수요기도회(11/2) – 2교구 주관**	
	13	겨자씨모임7(11/9)	
	20	겨자씨모임8(11/16)	
	27	겨자씨모임9(11/23), 겨자씨 종강(2학기)	
12월 성경봉독 4교구	4	**교구연합수요기도회(12/7) – 1교구 주관**	
	11		
	18	교구 연말행사	
	25		성탄절(12/25)

구제부 소식

행복한선교회를 소개합니다

행복한선교회는 장애인선교를 목적으로 1999년 3월13일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행복한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은 “행복한선교회”, “행복한교회”, “행복한집”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08번길 5-1, 지층
전화 : 031-731-5999
대표 : 조성철 목사 (010-8920-9234)

1. 행복한선교회

(1) 행복한나들이

봄과 가을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재가 장애인들을 모시고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 하나님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입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누어 드리며 선교합니다.

(2) 행복한콘서트

매년 연말에 장애인 초청 찬양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예술에 소외되고 연말에 외롭게 보내야 하는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찬양과 연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3) 명절 고향집 예배

설날과 추석에 장애로 인해 고향집이나 친척집에 가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명절을 지내면서 외롭고 우울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고향집처럼 음식을 대접하고 찬양으로 아름다운 잔치를 열어 드리며 명절 선물을 마련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분들을 고향집에 온 것처럼 기뻐하며 행복하도록 해드립니다.

2. 행복한교회(장애인교회)

장애인성도 20여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특수 목회 사역입니다. 장애인성도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맞는 설교 말씀과 예배 순서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특수목회 사역입니다

3. 행복한집 (장애인공동체)

오갈 곳 없는 장애인형제들을 섬기며 보살피는 공동체로 ‘행복한집’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행복한집 사역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애인 형제는 행복한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장애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 기도제목

정부보조금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행복한선교회이기에 월세, 운영비, 선교사역프로그램비 등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 보내주셔서 장애인선교사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신앙간증

어릴 적 고향 교회를 생각하며

제가 태어난 해는 1966년입니다, 형과 누나에 이어 셋째인 저는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건강했던지 백일사진을 벌교 읍내 사진관에서 찍었는데, 사진관 주인아저씨가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사진관 앞에 아기 모델처럼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10개월쯤 되었을 때 제 몸이 불덩이 같이 열이 심하게 나서 부모님은 읍내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독감이라며 주사를 맞혔는데, 집에 돌아오니 열은 내렸지만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고 무얼 잡고도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소아마비라는 병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며 놀고 싶다고 울어서 어머니의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습니다.

조성철 목사의 어릴 적 사진 : 두 번째 줄 왼쪽 첫 번째

7살쯤 되던 해에 여수 애향재활병원에서 두 다리 교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료할 때마다 미국인 선교사 의사 선생님이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앞으로 다니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발을 짚고 걷게 되었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행정마을에 낙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멀었어도 교회 가기 힘들었을 텐데 가까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낙성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분반 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읽어주신 시편 23편이 제 마음속에 평생의 성경구절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일 년간 금은세공 기술을 배우고 공방에 취업을 하였지만 심부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되기도 하며 막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오직 신앙을 붙잡고, 교회로 찾아가서 철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하는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전국에 찬양사역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까지 십여 차례 보내셔서 한인교회를 순회하며 찬양간증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불편한 몸 때문에 소풍도 가지 못해서 속상해 하던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한선교회 사역을 통해 장애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써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조성철 목사(복음가수, 행복한선교회 대표)

기도의 꽃잎

기도의 간절함에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손에 땀이 나도록
중얼중얼
눈과 마음이 에리고 에리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은 대답이 없다
희미한 목소리조차
털끝이라도 보였으면
만질 수만 있다면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삿되어
그분에게 결코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
두려움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떼를 써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분이기에
눈도 마음도 먹먹하고 먹먹하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계속 기도한다
아무리 지치고
지칠지라도
내 기도가 주문일지라도
내 기도가 한켜한켜 쌓여만 간다도

내 기도가 흩날리는 수많은 벚꽃처럼
비가 되어
눈이 되어
한 잎만이라도 땅에 떨어졌으면
한 잎만이라도 강에 떨어졌으면

윤재민 성도 / 8교구

찬양대 찬양일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중략)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를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듯이(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찬양 또한 말씀 즉, 가사가 먼저 존재하고 그 위에 음악이라는 옷을 덧입혔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가사는 찬양의 몸이며 덧붙여진 음악은 가사의 의미와 감동을 배가 시키는 의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불 수 있습니다.

샬롬찬양대가 2022년 새해 세 번째 주일(1월 16일)에 올려 드린 찬양곡 '그 이름을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시편 100편)에 음악이 덧붙여져 가사의 의미와 힘이 더욱 강화되고 명확해집니다. 가사의 억양과 맞아떨어지는 멜로디, 절제되고 통제된 화성,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리듬이 시종 가사에서 전해지는 음악적인 흐름과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민첩하게 가사에 반응합니다.

2022년 2월 20일 특송 '여호와 우리 주여'는 시편 8편의 구절에 1980년대 중반 새로운 스타일의 복음성가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최덕신'이 곡을 붙이고,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가 부른 것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는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이 찬양곡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고, 이를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자신을 '저'라고 낮추어 부르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대상이 분명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이 곡은 더 없이 좋은 예배 찬양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확대 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편곡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기악 협연이 완전체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었지만,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협력하고 한 주일간 밀도 있게 곡을 완성해 나갔던 노력의 과정이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며, 맡겨진 위치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연주에 참여하는 주오오케스트라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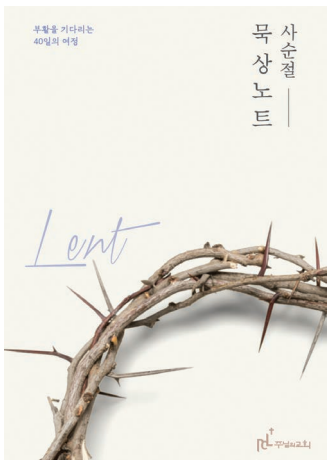
시편 8편의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무중력고음 노래 소리에 실려 영혼을 울리는 천사의 메아리로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는 듯합니다. *

코로나(COVID-19)가 앞 날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구원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찬양이 예배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샬롬찬양대

알립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40일의 여정 "사순절" 묵상노트 배부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재나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의 시간을 갖는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6번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little easter)이라 부르며 사순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매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쁨과 소망의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에게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새롭게 빚으려는 몸부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한다든지 육식을 금한다든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덧없는 운명을 생각한다든지... 떠들썩하고 회려한 음악회는 물론이고, 알렐루야나 대영광송 같은 기독교 음악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회개와 금욕을 통해 예수를 닮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깨달음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천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다름의 내용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TV 등을 절제하는 습관의 금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둘째, 주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선행을 베푸는 기간으로 실천합니다. 셋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40일의 여정 '사순절 묵상 노트'는 십자가를 향한 순례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며, 주님을 닮아 가기 위한 신앙 안내서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차분히 노트를 작성해 보면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공동체 안에서 이 노트를 작성하고 나눈다면 분명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묵상 노트'를 통해 다가올 부활절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묵상 노트'는 교회 로비와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꼬마 인터뷰 I 2022 함즐함울 신춘문예 간증 부문 당선자 김중호 안수집사

일상의 관찰에서 첫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글에 깔려있는 문학적 내공이 만만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문학 공부를 따로 하셨었나요?

문학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문학은 저와는 별 상관이 없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데 그리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소설 책 읽는 것은 꽤 좋아해서, 어느 하루는 학교 수업을 다 제끼고 집에서 하루종일 소설 책만 읽던 적도 있었습니다. ㅎㅎㅎ 학생. 당시 꼭 읽어야만 할 거 같은 〈광장〉을 위시하여 김정한, 이병주, 이문열, 조정래, 조성기, 박범신 등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병주의 소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교회 다니신 지는 오래 되셨죠?

주님의교회는 2001년에 등록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군요. 당시 동네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 교회를 옮겨야만 해서, 몇몇 교회 순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첫 인상은 남자 성도들의 자발적 봉사, 헌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시던 부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삶을 살아오신 부목사님들의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경험이 녹아든 설교가 저는 좋았습니다. 물론 당시 담임목사셨던 임영수 목사님의 설교는 최고였고요. ㅎㅎ

이번에 응모하신 간증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던 시절, 찬양대에서 운영하던 소식지 '터'와 밴드나 카톡 같은 SNS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찬양대 대장이니 대원 간에 소통에 신경쓸 수 밖에 없었고 대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완곡하게 나의 생각과 주장을 펴보고 싶었습니다. 주어진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시키며 찬양대에 대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의 삶과 말씀에는 뭐라 하나 고민하며 찬양 대원들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이 쌓이고 나름 재미도 붙이게 되어, 구역모임이나 일상의 관찰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단상을 낙서같이, 때로는 일기 같이, 습작같이 써 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응모한 작품도 구역 모임을 마친 어느 늦은 금요일 밤, 이제야 오롯이 일주일을 마감했다는 안도감과 안정감에 혼자 앉아서 끄적끄적 대충 써 놓고 팽개쳐 둔 것을 꺼내어 정리하고 완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학 활동을 계속 하시겠지요?

문학 활동이라 하시니 쑥스럽습니다. ㅎㅎㅎ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삶에 대하여 아직도 무지하여 부끄럽지만, '나의 이야기'를 쓰라며 '우선 첫 문장으로 시작하라' 던 어느 작가님의 말씀에 기대어 나의 일상을 찬찬히 돌아보며 관찰한 것을 어떤 첫 문장으로 시작해야 하나 늘 생각하겠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꼬마 인터뷰 I 2022 함즐함울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 윤재민 성도

일기처럼 기도처럼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문학 공부를 따로 하셨었나요?

감사합니다. 문학공부를 한 적은 없고, 전공이 문과쪽이라 원래 시나 글을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아프시면서 일기처럼 쓰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작년에 '나의 주님의교회 공모전'에서도 당선되고 이번 신춘문예에서도 당선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교회 다니신지는 오래되셨죠? 어떤 연유로 다니게 되셨으며,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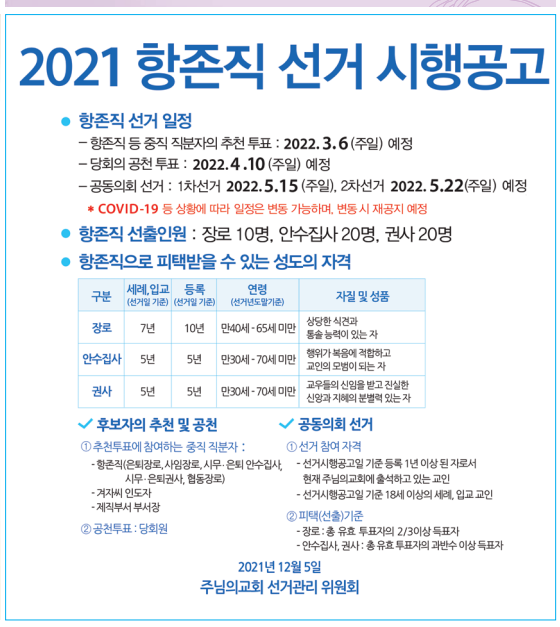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출석한지는 8~9년 되었습니다. 타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기학교 접수하러 왔다가 시간이 남아 박원호목사님 설교 듣고 출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주님의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공이 사학이다보니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보면서 비판적인 모습이었는데, 주님의교회는 대형교회이지만 여러 면에서 다른 대형교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걸인 아저씨가 교회 식당에서 성도분들과 함께 국수를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던지 교회에 대해 자랑하게 됩니다. 구제나 선교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응모하신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장인어른께서 아프실 때 신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특별히 당선작은 장인어른께서 수술받으실 때 쓴 시라 절박하고 진정성이 있어서 더 공감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시를 쓴 것은 딸을 위해서, 딸에게 주고 싶어서였는데 일기처럼, 기도처럼 글을 쓰며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도 받고 딸을 보며 부모님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딸이 냉정한 비평가가 되어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셔야겠지요?

네~ 일기처럼 계속 쓸 것입니다. 가끔 블로그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출판해서 보답해야 할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시를 써서 용기내서 출판하고 싶습니다.



교회일정

3/13(주일)	정기당회
3/16(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및 1학기 개강

알립니다

1.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입교 및 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교육 : 3/13~4/3(4주) 오후2:30/온라인(ZOOM)

문의 :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

* 입교세례예식: 4/10(주일) 3부 예배시

3.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마더 · 파더 와이즈 제3기 모집(자유편)

모집기간 : 3/20(주일)까지

교육기간 : 3/29(주일)~5/22(주일)(9주),
오후 8:00~9:30(ZOOM)

문의: 마더와이즈 / 정은영 목사(010.9592.0820)
파더와이즈 / 이상훈 목사(010.9808.4788)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 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